

# 노무사 이론반 경제학 보충자료(핵심기출문제)

03. 정상재인 커피의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shift)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노무사 2019]

- ① 커피의 가격이 하락한다.
- ②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 ③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 ④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상승한다.
- ⑤ 보완재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한다.

(정답) ⑤

(풀이)

- ① (X) 커피의 가격이 하락한다. ⇒ 수요곡선상의 이동
- ② (X)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한다. ⇒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③ (X) 소비자의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 ⇒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④ (X) 대체재인 홍차의 가격이 상승한다. ⇒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⑤ (O) 보완재인 설탕의 가격이 상승한다. ⇒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

**(참고)**

■ 수요변화의 요인(要因)

(1) 소득수준의 변화

재화종류	소득증가 시 수요 변화	예
① 정상재(보통재, 상급재)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소고기, 양주
② 열등재(하급재)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돼지고기, 소주

(2) 연관상품의 가격

재화종류	재화의 특징	예
① 대체재 (substitute goods)	· 용도가 비슷하여 대신 소비해도 만족의 차이가 별로 없는 재화. 한 재화(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고 대신 대체재(홍차)의 수요가 증가하여 대체재의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연관상품의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	사이다와 콜라, 커피와 홍차, 버터와 마아가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② 보완재 (complementary goods)	·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 한 재화(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보완재(프림)의 수요가 감소하여 보완재의 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 연관상품의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수요가 변화	커피와 설탕, 커피와 프림, 카메라와 필름 등

(3) 소비자의 기호(嗜好)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컴퓨터, 휴대폰)

(4) 인구의 변화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전체)수요가 증가

(5) 소비자의 예상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요증가(가수요)하고 또한 미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수요증가

11. X재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X재의 소비지출액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 반면, Y재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재의 소비지출액은 10% 증가하였다. 이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노무사 2013]

- ① X재 : 완전탄력적, Y재 : 단위탄력적
- ② X재 : 단위탄력적, Y재 : 완전탄력적
- ③ X재 : 단위탄력적, Y재 : 완전비탄력적
- ④ X재 : 완전비탄력적, Y재 : 비탄력적
- ⑤ X재 : 완전비탄력적, Y재 : 단위탄력적

(정답) ③

(풀이) [ 09 문제 ] (참고)

$$TR = P \times Q \text{을 변화율로 변환하면 } \frac{\Delta TR}{TR} = \frac{\Delta P}{P} + \frac{\Delta Q}{Q}$$

$$\epsilon_d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 \frac{\frac{\Delta Q}{Q}}{\frac{\Delta P}{P}} = - \frac{\Delta Q}{\Delta P} \cdot \frac{P}{Q}$$

1) X재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X재의 소비지출액은 전혀 변화하지 않으면

$$\frac{\Delta TR}{TR} = \frac{\Delta P}{P} + \frac{\Delta Q}{Q} \Rightarrow 0\% = 5\% + \frac{\Delta Q}{Q} \quad \therefore \frac{\Delta Q}{Q} = -5\%$$

$$\epsilon_d = \frac{\text{수요량의 변화율}}{\text{가격의 변화율}} = - \frac{\frac{\Delta Q}{Q}}{\frac{\Delta P}{P}} = - \frac{-5\%}{5\%} = 1 \quad \text{그러므로 단위탄력적}$$

2) Y재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재의 소비지출액은 10% 증가하였다

$$\frac{\Delta TR}{TR} = \frac{\Delta P}{P} + \frac{\Delta Q}{Q} \Rightarrow 10\% = 10\% + \frac{\Delta Q}{Q} \quad \therefore \frac{\Delta Q}{Q} = 0\%$$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므로 Y재는 완전비탄력적

25. 휴대폰의 수요곡선은  $Q = -2P + 100$  이고, 공급곡선은  $Q = 3P - 20$  이다. 정부가 휴대폰 1대당 10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였다면, 휴대폰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단,  $P$ 는 가격,  $Q$ 는 수량,  $P > 0$ ,  $Q > 0$ 이다.) (2016 노무사)

- ① 120                      ② 160                      ③ 180                      ④ 200                      ⑤ 220

(정답) ②

(풀이)

균형을 구하면  $-2P + 100 = 3P - 20 \Rightarrow 5P = 120, \therefore P=24, Q=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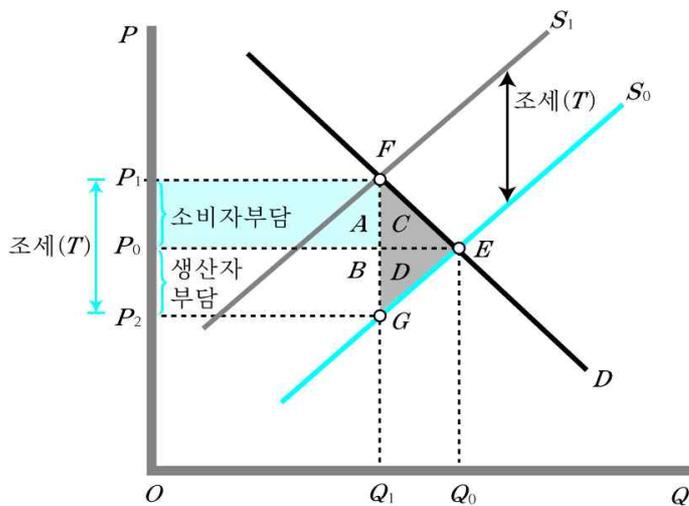
1대당 10의 종량세 형태의 물품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였다면 공급곡선은

$Q = 3(P-10) - 20$ 이 되므로  $Q = 3P-50$ 이다.

새로운 균형점을 구하면  $-2P + 100 = 3P - 50 \Rightarrow 5P = 150 \therefore P=30, Q=40$

소비자가격이 24에서 30으로 소비자부담이 1단위당 6만큼 증가하였으므로 생산자부담은

1단위당 4만큼 증가하였으므로 공급자가 부담하는 총 조세부담액은  $4 \times 40(=Q) = 160$



- ① 최초의 균형점  $E$ 점에서  
가격= $P_0$ , 균형량= $Q_0$
- ②  $T$ 만큼의 조세를 부과  
→ 공급곡선이 상방으로  $T$ 만큼 평행이동:  $S_0 \rightarrow S_1$   
→ 새로운 균형점  $F$ 점에서  
가격= $P_1$ , 균형량= $Q_1$
- ③ 생산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  
= 가격( $P_1$ )-조세( $T$ )= $P_2$
- ④ 소비자부담 :  $P_1 - P_0$   
생산자부담 :  $P_0 - P_2$
- ⑤ 총조세액 :  $\square(A+B)$
- ⑥ 사회적 후생손실 발생  
 $\Delta(C+D)$

36. 재화 X와 Y만을 소비하는 A의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며,  $MU_X$ 는 X재의 한계효용,  $P_X$ 는 X재의 가격,  $MU_Y$ 는 Y재의 한계효용,  $P_Y$ 는 재의 Y가격이다.) [노무사 2019]

- ①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이다.
- ②  $\frac{MU_Y}{MU_X} > \frac{P_Y}{P_X}$ 인 경우에 Y재의 소비를 줄이고 X재의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증가할 수 있다.
- ③ 예산제약선의 기울기는 두 재화 가격의 비율이다.
- ④ 효용극대화는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 ⑤ 한계대체율은 두 재화의 한계효용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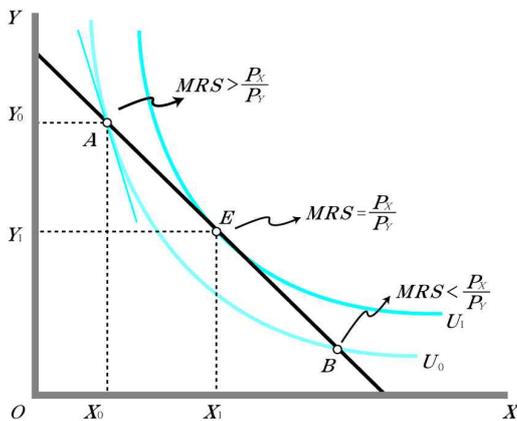
(정답) ②

(풀이)

$\frac{MU_Y}{MU_X} > \frac{P_Y}{P_X}$ 이면  $MRS = \frac{MU_X}{MU_Y} < \frac{P_X}{P_Y}$ 이므로 ③의 경우이므로 X재 구입량을 감소시키고 Y재 구입량을 증가시키면 E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여 효용이 증가한다.

(참고)

■ 소비자균형조건



- ① E점에서  $MRS_{XY} = \frac{P_X}{P_Y}$ 이 성립하므로 효용극대화가 되는 소비자균형점
- ② A점에서  $MRS > \frac{P_X}{P_Y}$ 가 성립하므로 X재 구입량을  $X_0$ 에서  $X_1$ 으로 증가시키고 Y재 구입량을  $Y_0$ 에서  $Y_1$ 으로 감소시키면 E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여 효용이 증가한다. ( $U_0 \rightarrow U_1$ )
- ③ B점에서  $MRS < \frac{P_X}{P_Y}$ 이 성립하므로 X재 구입량을 감소시키고 Y재 구입량을 증가시키면 E점으로 균형점이 이동하여 효용이 증가한다.

45. 기펜재(Giffen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1 노무사 )

- ① 가격이 하락하면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 ②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이다.
- ③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
- ④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열등재가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 ⑤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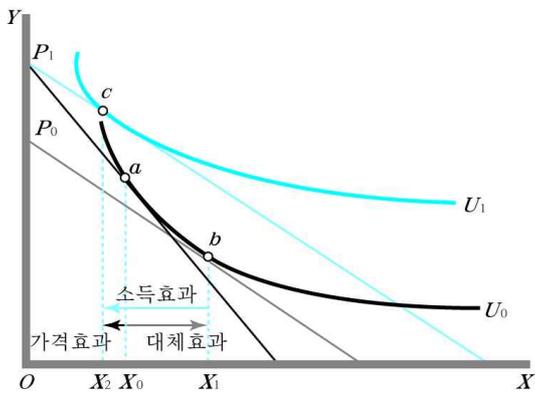
(정답) ③

(풀이)

- ① (O) 가격이 하락하면 (참고)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 ② (O) (참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이다.
- ③ (X) 가격 상승 시 소득효과는 양(+)이므로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 ④ (O) 기펜재는 모두 열등재이지만 열등재가 모두 기펜재는 아니다.
- ⑤ (O) 가격 하락 시 대체효과는 음(-)이므로 재화의 소비량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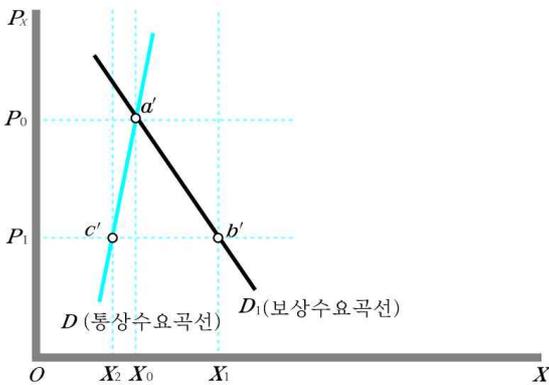
(참고)

■ 기펜재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① 균형점이 a에서 c로 이동하는 효과를 가격효과라 한다.

② 이 때 균형점이 a에서 b로 이동하여 X재 구입량이 X<sub>0</sub>에서 X<sub>1</sub>으로 증가하는 것은 상대가격 하락에 의한 효과로 대체효과라 하며 균형점이 b에서 c로 이동하여 X재 구입량이 X<sub>1</sub>에서 X<sub>2</sub>으로 감소하는 것은 실질소득이 증가한 효과로 소득효과라 한다.



③ 기펜재는 열등재이므로 소득효과는 양(+) 방향이다. 즉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량이 감소한다.

④ 양(+)의 소득효과가 음(-)의 대체효과보다 크므로 가격효과는 양(+)이 된다. 가격효과가 양(+)이면 통상 수요곡선(D)은 우상향하므로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50.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 2016 노무사 )

- ㄱ.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감소한다.
- ㄴ.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 ㄷ. 대체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ㄹ. 소득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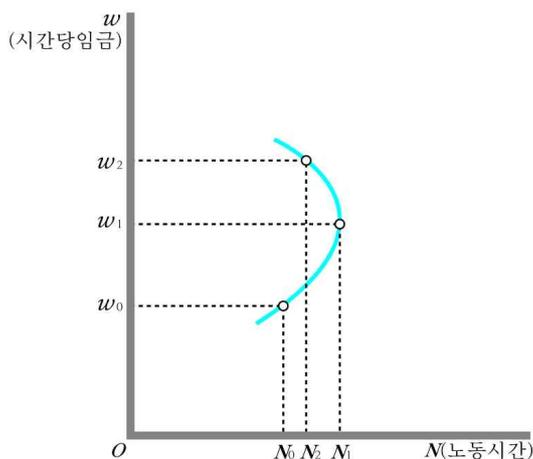
- ㄱ. (X)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 ㄴ. (O) 임금의 상승은 여가의 기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인다.
- ㄷ. (O) 대체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줄이고 노동공급량을 증가시킨다.
- ㄹ. (O) 소득효과는 여가의 소비를 늘리고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킨다.

(참고)

■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1)

- ① 대체효과 : 임금상승 → 여가의 상대가격 상승 → 여가소비 감소 → 노동공급 증가
- ② 소득효과 : 임금상승 → 실질소득 상승 → 여가(정상재)소비 증가 → 노동공급 감소
- ◆ 여가가 열등재이면 여가가 감소하므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와 소득효과(2)



☞ 여가가 정상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

- ① 임금상승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우상향 ( $w_0 \rightarrow w_1$ )
- ② 임금상승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수직선
- ③ 임금상승 → 대체효과 < 소득효과 → 후방굴절 ( $w_1 \rightarrow w_2$ )

☞ 여가가 열등재인 경우 노동공급곡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임금상승 시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곡선은 항상 우상향하여 후방굴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64.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Q = AK^\alpha L^{1-\alpha}$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K는 자본, L은 노동, Q는 생산량,  $0 < \alpha < 1$ , A는 상수,  $A > 0$ 임) ( 2015 노무사 )

- ①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1차동차성을 갖는다.
- ③ 자본의 평균생산은 체증한다.
- ④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 ⑤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1로 일정하다.

(정답) ③

(풀이)

- ① (O)  $\alpha + \beta = 1$ 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의 특성을 갖는다.
- ② (O)  $\alpha + \beta = 1$ 이므로 1차동차성을 갖는다.
- ③ (X) 자본의 평균생산은  $AP_K = \frac{Q}{K} = AK^{\alpha-1}L^{1-\alpha} = A\left(\frac{L}{K}\right)^{1-\alpha}$  이므로 체감한다.
- ④ (O)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 ⑤ (O) 생산요소 간 대체탄력성은 1로 일정하다.

■ Cobb-Douglas생산함수

$$Q = AL^\alpha K^\beta \quad (A > 0)$$

(1) Cobb-Douglas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

생산함수  $Q = F(L, K) = AL^\alpha K^\beta$  라 하면 동차생산함수의 정의에 의해 항상  $\alpha + \beta$  차 동차생산함수가 되므로

- ①  $\alpha + \beta = 1$ (1차 동차)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 ②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 ③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2) 각 생산요소의 평균 및 한계생산물

- ①  $AP_L = \frac{Q}{L} = \frac{AL^\alpha K^\beta}{L} = AL^{\alpha-1} K^\beta$
- ②  $AP_K = \frac{Q}{K} = \frac{AL^\alpha K^\beta}{K} = AL^\alpha K^{\beta-1}$
- ③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 \alpha AL^{\alpha-1} K^\beta$
- ④  $MP_K = \frac{\partial Q}{\partial K} = \beta AL^\alpha K^{\beta-1}$

(3) 생산의 요소탄력성

① 생산의 노동 탄력성  $= \frac{dQ/Q}{dL/L} = \frac{MP_L}{AP_L} = \alpha$

② 생산의 자본 탄력성  $= \frac{dQ/Q}{dK/K} = \frac{MP_K}{AP_K} = \beta$

(4) 대체탄력성

Cobb-Douglas생산함수는 대체탄력성의 정의에 의해 항상 대체탄력성은 1

71.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비용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0 노무사 )

- ①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②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③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는 평균총비용이 하락한다.
- ④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 ⑤ U자 모양의 평균총비용곡선 최저점의 산출량을 효율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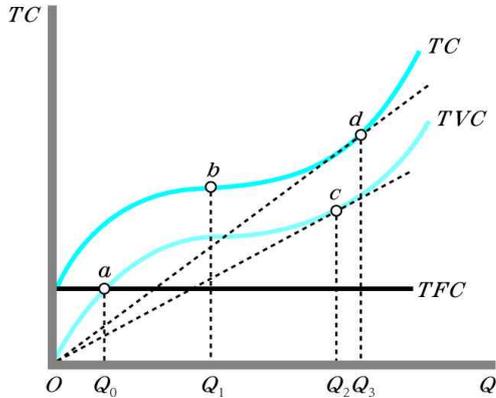
(정답) ③

(풀이)

- ① (O)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② (△)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변비용이 증가한다면, 이는 한계생산물이 체감하기 때문이다.
- ③ (X) 한계비용이 평균총비용보다 클 때는 평균총비용이 상승한다.
- ④ (O)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 ⑤ (O) U자 모양의 평균총비용곡선 최저점의 산출량을 효율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참고)

■ 단기비용곡선들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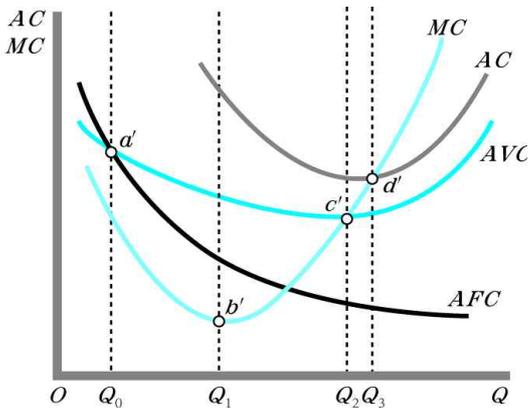
① 곡선들과의 관계

- 1)  $AVC$ 는 항상  $AC$ 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AC$ 는  $AFC$ 와  $AVC$ 의 합이므로  $AC$ 가  $AVC$ 보다  $AFC$ 만큼 크기 때문이며 이에  $AFC$ 가 감소함에 따라  $AC$ 는  $AVC$ 에 점점 근접한다.
- 2)  $AVC$ 의 극소점은  $AC$ 의 극소점보다 왼쪽에 위치한다.
- 3)  $MC$ 는  $AVC$ 와  $AC$ 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MC < AC(AVC) \Leftrightarrow AC(AVC)$  감소

$MC = AC(AVC) \Leftrightarrow AC(AVC)$  극소

$MC > AC(AVC) \Leftrightarrow AC(AVC)$  증가



② 최적(효율적)산출량

주어진 시설규모 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할 때의 산출량으로 평균비용( $AC$ )최저점에서 의 산출량( $Q_3$ )을 의미한다.

③ 한계비용이 감소하는 것과, 단기평균비용곡선 ( $AC, AVC$ )이 U자인 것은 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다.

79. A기업은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1,000개를 생산하고 전량 판매하고 있다. 이때 한계비용은 10원, 평균가변비용은 9원, 평균고정비용은 2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0 노무사 )

- ① 총수입은 10,000원이다.
- ② 총비용은 11,000원이다.
- ③ 상품 개당 가격은 10원이다.
- ④ 총가변비용은 9,000원이다.
- ⑤ 단기에서는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답) ⑤

(풀이)

완전경쟁기업은  $P = MC = 10$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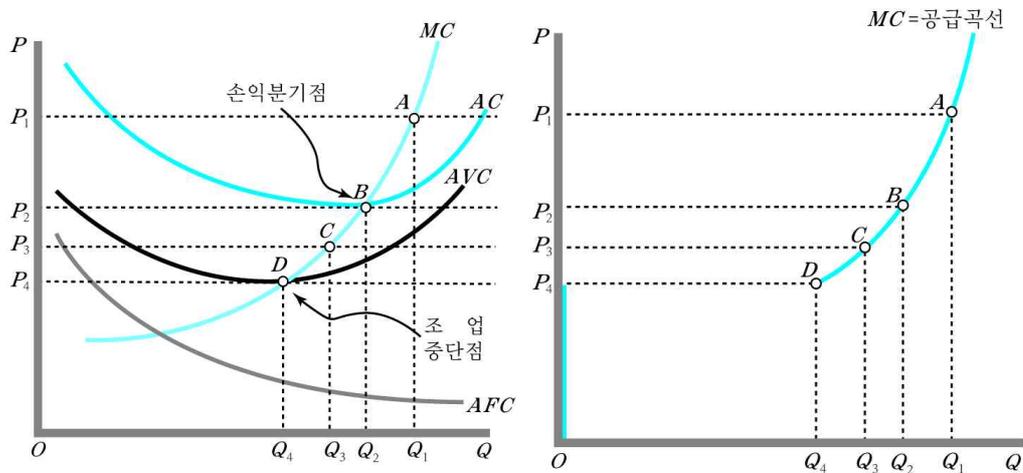
- ① (O) 총수입은  $TR = PQ = 10 \times 1,000 = 10,000$ 원이다.
- ② (O) 총비용은  $TC = AC \times Q = (AVC + AFC) \times Q = (9 + 2) \times 1,000 = 11,000$ 원이다.
- ③ (O)  $P = MC = 10$ 이므로 상품 개당 가격은 10원이다.
- ④ (O) 추가변비용은  $TVC = AVC \times Q = 9 \times 1,000 = 9,000$ 이다.
- ⑤ (X)  $AVC < P < AC$ 이므로 단기에서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생산은 계속해야 한다.

■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의 도출

완전경쟁기업은  $P = MC$  에서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결정된다.

가격	AC과 비교	이윤	생산량	비고
① $P_1$	$P > AC$	초과이윤	A점에서 $Q_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분기점 → AC극소점 (정상이윤)</li> <li>■ 가변비용은 회수 → 생산은 계속</li> <li>■ 생산(조업)중단점 → AVC 극소점</li> </ul>
② $P_2$	$P = AC$	초과이윤이 0	B점에서 $Q_2$	
③ $P_3$	$AVC < P < AC$	손실이 발생	C점에서 $Q_3$	
④ $P_4$	$AVC = P < AC$	손실이 발생		

이상에서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은 D점(AVC 극소점)을 상회하는 MC곡선이 도출된다.



9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시장수요함수가  $Q=300-P$ 이고, 비용함수가  $C=0.5Q^2$ 일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량, P는 가격, C는 비용임)

( 2015 노무사 )

- ①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TR=(300-Q)Q$ 이다.
- ②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은  $MR=300-2Q$ 이다.
- ③ 독점기업의 한계비용은  $MC=Q$ 이다.
- ④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Q=100$ 이다.
- ⑤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P=100$ 이다.

(정답) ⑤

(풀이)

시장수요함수가  $Q=300-P \Rightarrow P=300-Q$ 이므로  $TR=AR \times Q=(300-Q)Q$ 이다.  
따라서  $MR=300-2Q$ 이다.

비용함수가  $C=0.5Q^2$ 이므로  $MC=\frac{dTC}{dQ}=Q$

이윤극대화  $MR=MC$ 이므로  $300-2Q=Q \Rightarrow 3Q=300 \therefore Q=100 \quad P=200$

⑤ (X)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은  $P=200$ 이다.

101.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무사 2013]

- ①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입수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할 수 있다.
- ② 분리된 시장간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 가격차별이 효과적이다.
- ③ 분리된 두 시장에서 각각의 한계수입과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 ④ 완전가격차별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시장의 가격을 탄력성이 작은 시장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

(정답) ④

(풀이)

① (O) 2급가격차별에서는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입수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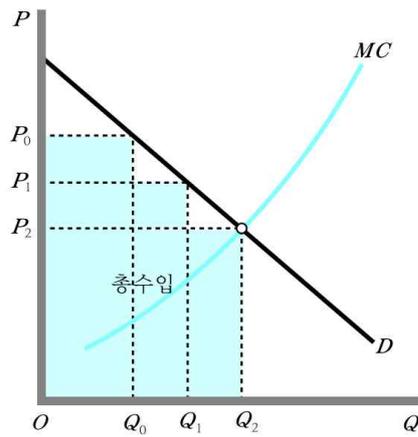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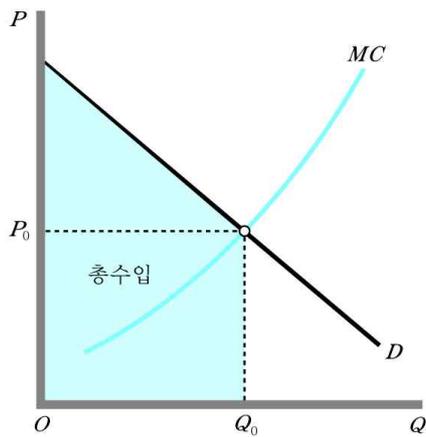
② (O) 3급가격차별의 성립조건에서 분리된 시장간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 가격차별이 효과적이다.

③ (O) 3급가격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_1 = MR_2 = MC$ 이므로 분리된 두 시장에서 각각의 한계수입과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④ (X) 완전가격차별은 완전경쟁 생산량과 같으므로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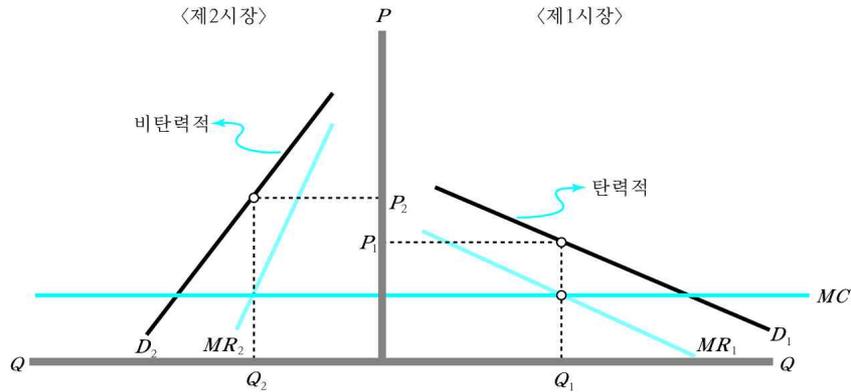
⑤ (O) 3급가격차별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_1 = MR_2 = MC$ 을 적용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시장의 가격을 탄력성이 작은 시장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

1급 가격차별 (완전가격 차별)	2급 가격차별 (second-degree price discrimination)
<p>→ 1급 가격차별이란 각 단위의 재화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p> <p>①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일치하므로 완전경쟁과 같은 생산량을 생산한다.</p> <p>②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한다.</p> <p>③ 소비자잉여가 모두 독점기업으로 귀속된다.</p> <p>▸ 현실적인 예가 거의 없다.(기부금 입학제)</p>	<p>→ 2급 가격차별이란 재화의 구입량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짜장면 곱빼기)</p> <p>① 가격차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량이 증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증가한다.</p> <p>② 소비자잉여의 많은 부분이 독점기업으로 귀속된다.</p> <p>③ 정보의 비대칭이 요인</p> <p>▸ 사용량에 따라 달리하는 요금제</p>



### ■ 3급 가격차별 성립 조건

- ① 기업이 독점력이 존재 →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 ② 시장의 분리가 가능
- ③ 각 시장의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서로 상이
- ④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
- ⑤ 시장분리비용이 가격차별에 따른 이윤 증가 분보다 작아야한다.



- ①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탄력적인 제1시장 :  $MR_1 = MC$   
 $P_1$ 의 가격으로  $Q_1$ 만큼 판매하여 수요가 비탄력적인 소비자그룹보다 낮은 가격
- ②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비탄력적인 제2시장 :  $MR_2 = MC$   
 $P_2$ 의 가격으로  $Q_2$ 만큼 판매하여 수요가 탄력적인 소비자그룹보다 높은 가격

120. 기업의 생산함수가  $Y=200N-N^2$  이고( Y는 생산량, N은 노동시간임),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 가치가 40이다.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생산물의 가격이 1일 때 균형노동시간은? [노무사 2013]

- ① 25시간      ② 75시간      ③ 80시간      ④ 95시간      ⑤ 125시간

(정답) ③

(풀이) [ 114 문제 ] (참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윤극대화 조건은

$$\text{요소가격}(w) = VMP_L = (MP_L \times P)$$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 가치가 임금을 의미하므로  $w = 40$ 이다.

$$\text{한편, } MP_L = \frac{dY}{dN} = 200 - 2N \text{이므로}$$

$$VMP_L = (MP_L \times P) = (200 - 2N) \times 1 = 40 \quad \therefore N = 80$$

121. 노동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함) [노무사 2011]

- ㄱ.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로봇의 이용 증가
- ㄴ.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
- ㄷ.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풀이)

- ㄱ. (O)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로봇의 이용 증가 → K 요소 수요증가 → 노동 수요감소
- ㄴ. (X) 노동의 한계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진보 → 생산성향상( $MP_L$  증가) → 노동 수요증가
- ㄷ. (O) 노동을 대체하는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 증가 → 대체요소의 가격하락 → 대체요소 수요증가 → 노동 수요감소

(참고)

■ 요소(노동)수요의 결정요인

$$VMP_L = MP_L \times P \text{ 이므로}$$

- 1) 가격( $P$ )이 상승하면  $VMP_L$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증가한다.
- 2) 한계생산물( $MP_L$ )이 상승하면  $VMP_L$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요소수요가 증가한다.

결정요인	이유	요소수요(L)
해당재화 가격상승	$VMP_L = MP_L \times P$	증가
생산성향상( $MP_L$ 증가)	$VMP_L = MP_L \times P$	증가
해당재화 수요증가	파생수요	증가
대체요소(K)의 가격상승	K 를 L로 대체	증가
대체요소(K)의 생산성 향상	K 요소 수요증가	감소

124.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단기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무사 2013]

- ㄱ.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sub>L</sub>)와 한계수입생산물(MRPL)은 일치한다.
- 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ㄷ. 기술진보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⑤ ㄴ, ㄷ

(정답) ③

(풀이)

- ㄱ. (O)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sub>L</sub>)와 한계수입생산물(MRPL)은 일치한다.  
→ 생산물시장이 완전경쟁이면 개별기업은 생산물 공급자로서 가격수용자 이므로  $P = AR = MR$  이 성립한다. 따라서  $MRP_L = MP_L \times MR = MP_L \times P = VMP_L$  (한계생산물가치)
- ㄴ. (X)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  $VMP_L = (MP_L \times P)$ 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 ㄷ. (O) 기술진보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  $VMP_L = (MP_L \times P)$ 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134. 노동공급곡선이  $L=w$ 이고,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인 기업 A가 있다.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수입생산물이  $MRP_L = 300 - L$ 일 때, 아래의 설명들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L은 노동, w는 임금, 기업A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생산물시장에서 독점기업임) ( 2015 노무사 )

- ㄱ. 이 기업의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MFC_L = L$ 이다.
- ㄴ. 이 기업의 고용량은  $L=100$ 이다.
- ㄷ. 이 기업의 임금은  $w=200$ 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정답) ⑤

(풀이)

노동공급곡선인  $AFC_L$ 이  $w = L$ 이므로  $TFC_L = AFC_L \times L = L^2$

$$MFC_L = \frac{dTFC}{dL} = 2L \text{이다.}$$

이윤극대화 고용량은 **한계수입생산물(MRP<sub>L</sub>) = 한계요소비용(MFC<sub>L</sub>)**이므로

$$300 - L = 2L \Rightarrow 3L = 300 \quad \therefore L = 100 \text{이다.}$$

임금은 노동공급곡선인  $w = L$ 에서 결정되므로  $w = L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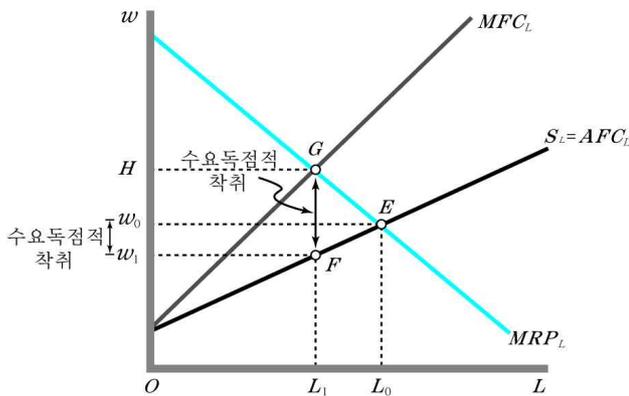
- ㄱ. (X) 이 기업의 노동의 한계요소비용은  $MFC_L = 2L$ 이다.
- ㄴ. (O) 이 기업의 고용량은  $w = L = 100$ 이다.
- ㄷ. (X) 이 기업의 임금은  $w = L = 100$ 이다.

■ **요소수요 독점 (D시장: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이 모두 불완전경쟁시장)**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수입생산물(MRP<sub>L</sub>) = 한계요소비용(MFC<sub>L</sub>)**이므로 요소수요독점인 기업은  $MRP_L$ 과  $MFC_L$ 의 교점인 G점에서 고용량  $L_1$ 을 결정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은 공급곡선  $S_L = AFC_L$ 에 의해 결정된  $w_1$ 을 지급한다.

→ 요소수요곡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text{균형고용량 } L_1 \text{에서 } S_L = AFC_L = w_1 < MRP_L = MFC_L < VMP_L$$



- ① 옆 그림에서  $w_0 - w_1$ 을 수요독점적 착취라 한다.
- ② 수요독점적착취에 의한 독점기업의 초과이윤은  $\square w_1FGH$ 이다.
- ③ 사회적 후생손실은  $\triangle EFG$ 이다.
- ④ 요소공급곡선 ( $AFC_L$ )에서 임금을 결정하므로 요소수요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137.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자인 A기업의 생산함수는  $Q=4L+100$ 이다. 생산물시장은 완전 경쟁이고, 생산물가격은 200이다. 노동공급곡선이  $w=5L$  인 경우, 이윤극대화가 달성되는 노동의 한계요소비용과 한계수입 생산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Q는 산출량, L은 노동투입량, w는 임금이다.) ( 2020 노무사 )

- ① 400, 400      ② 400, 600      ③ 600, 800      ④ 800, 800      ⑤ 900, 900

(정답) ④

(풀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 생산요소시장은 독점

노동공급곡선이  $AFC_L(w=5L)$ 이므로 한계요소비용( $MFC_L$ )을 구하면 절편이 같고 기울기가 2배이므로  $MFC_L = 10L$ 이다.

한편,  $VMP_L = MP_L \times P$ 에서  $MP_L = \frac{dQ}{dL} = 4$ 이므로  $VMP_L = MP_L \times P = 4 \times 200 = 800$

따라서 이윤극대화 조건 **한계생산물가치( $VMP_L$ ) = 한계요소비용( $MFC_L$ )**을 적용하면

$10L = 800 \therefore L = 80$

노동의 한계요소비용:  $MFC_L = 10L = 10 \times 80 = 800$

■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 생산요소시장은 독점(C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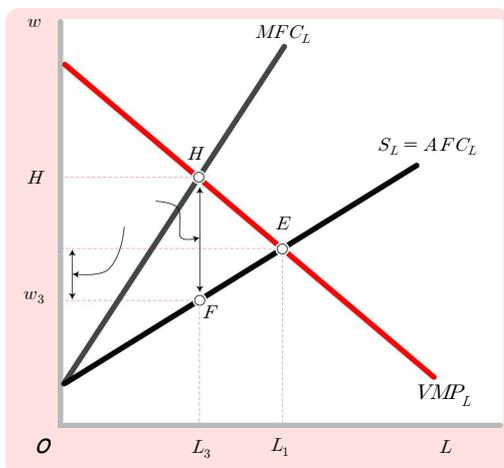
(1) 이윤극대화 조건

① 생산물시장은 완전경쟁  $\rightarrow VMP_L$ , 생산요소시장은 독점  $\rightarrow MFC_L$

② 생산요소시장의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 $VMP_L$ ) = 한계요소비용( $MFC_L$ )**

(2) 시장의 균형

① 요소수요독점인 기업은  $VMP_L$ 과  $MFC_L$ 의 교점임 H점에서 고용량  $L_3$ 을 결정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은 공급곡선  $S_L = AFC_L$ 에 의해 결정된  $w_3$ 을 지급한다.



① 이윤극대화조건은  
한계생산물가치( $VMP_L$ )  
= 한계요소비용( $MFC_L$ )

② 사회적 후생손실은  $\triangle EFH$ 이다.

③ 요소공급곡선 ( $AFC_L$ )에서 임금을 결정하  
므로 요소수요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157.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상품 A의 시장 수요곡선은  $Q = 20 - P$  이고, 사적 한계비용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곡선이 각각  $PMC = 6 + Q$ ,  $SMC = 10 + Q$  이다.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해야하는 생산 단위당 세금은? (단, Q는 생산량, P는 가격이고 완전 경쟁시장을 가정한다.) ( 2021 노무사 )

- ① 1.5      ② 2      ③ 3      ④ 4      ⑤ 5

(정답) ④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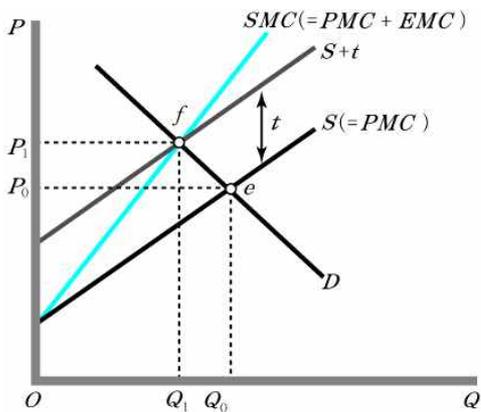
수요곡선  $Q = 20 - P$ 와  $SMC = 10 + Q$ 에서 바람직한 생산량을 구하면,

수요곡선은  $P = 20 - Q$ 이므로  $20 - Q = 10 + Q$ 에서  $Q = 5$

이 때  $SMC = 10 + Q = 15$ ,  $PMC = 6 + Q = 11$ 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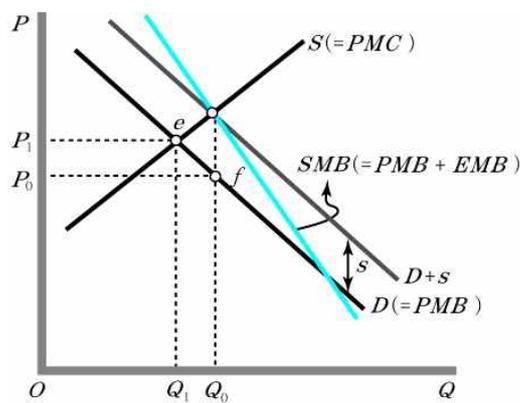
$$\text{조세}(t) = SMC - PMC = 4$$

■ 조세부과와 보조금지급



② 조세부과(외부비용)

- 생산에 외부비용이 발생
  - 바람직한 산출량( $Q_1$ )수준에서
  - 조세( $t$ )= $SMC - PMC$ 만큼 부과
  - 사적한계비용( $PMC$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③ 보조금지급(외부이익)

- 소비에 외부이익이 발생
  - 재화단위당  $s$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
  - 사적편익곡선( $PMB$ )이 상방으로 이동
  - 생산량과 가격이 바람직한 수준

168. 다음 중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노무사 2010]

- ① 2010년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2008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부가가치
- ② 중고제품상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0년 급여액
- ③ 2007년에 건축된 아파트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2010년 중개수수료 수입
- ④ 2010년에 생산되었으나 2010년에 판매되지 못한 휴대폰의 부가가치
- ⑤ 2010년에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

(정답) ①

[풀이]

2010년 국내총생산(GDP)는 해당년도에 생산된 최종생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2010년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2008년에 생산된 자동차의 부가가치는 2008년도 GDP에 포함된다.

180.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0 노무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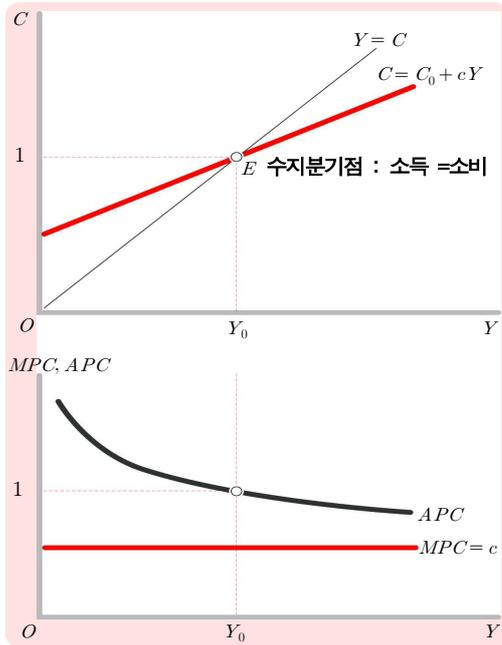
- ① 항상 소득이론에서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크다.
- ② 생애주기 이론에서 소비는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절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④ 처분가능소득의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 ⑤ 절대소득가설이 항상 소득이론 보다 한시적 소득세 감면의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평가한다.

(정답) ①

(풀이)

- ① (X) 항상 소득이론에서 일시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은 0이므로 항상소득의 한계소비성향보다 작다.
- ② (O) 생애주기 이론에서 소비는 소득이 평생소득의 개념이므로 미래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 ③ (O) 절대소득가설에서는 현재 처분가능소득(가역적, 독립적)의 절대적 크기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 ④ (O)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의 합이므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다.
- ⑤ (O) 절대소득가설이 항상 소득이론 보다 한시적 소득세 감면은 현재 처분가능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증가하므로 소비 진작 효과를 더 크게평가한다.

■ 케인즈 소비함수



소비는 (국민)소득의 증가함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C = C_0 + cY$$

(단,  $C_0$ : 기초소비,  $c$ : 한계소비성향)

이 때 평균소비성향( $APC$ ) =  $\frac{C}{Y}$  으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이므로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점점 작아지지만 한계소비성향( $MPC$ ) 보다는 항상 크다.

즉, 항상  $APC > MPC$

소비함수가 소비축을 지나는 성질을 나타냄

■ 평균저축성향( $APS$ )과 한계저축성향( $MPS$ )

(1) 평균저축성향( $APS$ ) =  $\frac{S}{Y}$

①  $Y = C + S$ 의 양변을  $Y$ 로 나누면,  $\frac{Y}{Y} = \frac{C}{Y} + \frac{S}{Y}$ 에서  $\rightarrow APC + APS = 1$

② 원점에서 그은 직선의 기울기로 점점 증가

(2) 한계저축성향( $MPS$ ) =  $\frac{\Delta S}{\Delta Y}$

①  $\frac{\Delta Y}{\Delta Y} = \frac{\Delta C}{\Delta Y} + \frac{\Delta S}{\Delta Y}$ 에서  $\rightarrow MPC + MPS = 1$  즉,  $c + s = 1 \rightarrow s = 1 - c$

② 접선의 기울기로 일정

■ 소비함수이론

1.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恒常所得假說] (Friedman)

(1) 항상소득과 소비

(항상)소비는 임시소득과는 관계없고 오직 항상소득의 일정비율이다.

$$C = kY_p = k(Y - Y_T)$$

(2) 장, 단기 소비함수

단기소비함수( $SRF$ )는 소비축을 통과하므로  $APC > MPC$  가 성립한다.

장기소비함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된다. 즉,  $APC = MPC = k$ 이 성립

(3) 특징과 장, 단점

일시적인 조세감면(재량적 확대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임시소득만 증가시키므로 소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저축만 증가시킨다.

→ 케인즈의 재량적정책은 효과가 없다.

유동성제약이 발생하면 소비는 항상소득보다는 현재소득에 의존하므로 항상소득가설이나 평생소득가설보다는 절대소득가설이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 2.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生涯週期假說] (Modigliani, Ando)

### (1) 소비는 평생 동안의 총소득에 의해 결정

- ① 소득은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매우 낮아서 (-)의 저축이 발생하고 장년기에는 매우 높아서 (+)의 저축이 발생한다.
- ② 한편 소비는 일생동안 변동 폭이 매우 작아 안정적이다.

### (2) 장, 단기 소비함수

$$C = aY_L + bY_C$$

( a: 노동소득의 한계소비성향, b: 자산소득의 한계소비성향 )

단기소비함수(SRC)는 소비축을 통과하고  $APC > MPC$  가 성립한다.

원점을 지나는 장기소비함수가 도출된다. 즉,  $APC = MPC$  가 성립한다.

## 191.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18 노무사 )

- ①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커진다.
- ② 통화승수는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 ③ 통화승수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 ④ 통화승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 ⑤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정답) ②

(풀이)

① (O) 통화승수는  $m = \frac{1}{c+z(1-c)}$  법정지급준비율(z)을 낮추면 커진다.

② (X)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현금이 감소하므로 통화승수는 커진다.

③ (O)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c = \frac{\text{현금통화}(C)}{\text{통화량}(M)}$ 이 증가하므로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④ (O)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z = \frac{\text{실제지준금}(Z)}{\text{예금통화}(D)}$ 이 증가하므로 통화승수는 작아진다.

⑤ (O)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한편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있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을 갖는다.

(참고)

$$\text{통화승수: } m = \frac{M}{H} = \frac{M}{C+Z} = \frac{1}{c+z(1-c)}$$

- 중간변수(본원통화, 통화승수)를 통한 통화공급 증가요인

중간변수	통화공급 증가요인
본원통화 증가	▸ 재할인을 하락에 의한 예금은행 대출 증가
	▸ 고객예금감소나 고객 대출증가로 인한 예금은행 대출 증가
	▸ 중앙은행의 채권(통화안정증권, RP)매입
	▸ 정부의 대출 증가
통화승수 상승	▸ 국제수지 흑자(내생성을 가정)
	▸ 민간이나 예금은행의 현금보유감소 → 예금예금비율(현금통화비율)하락
	▸ 지준을 하락 ▸ 이자율 상승(내생성을 가정) → 현금통화비율 또는 초과지준을 하락

202.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 2018 노무사 )

- ① 조세 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자원조달방식이다.
-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 ⑤ 자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②

(풀이)

- ① (X) 조세 징수, 국채발행 모두 효과없는 자원조달방식이다.
- ② (O)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래조세가 증가하므로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③ (X)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미래조세가 증가한다.
- ④ (X)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미래조세를 위해 소비를 줄이므로 민간의 저축이 증가한다.
- ⑤ (X) 자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

(참고)

-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1. 리카르도 등가정리(공채중립성정리)의 개념

정부지출재원의 조달방식을 조세를 통하여 조달하던 민간차입인 국공채발행을 통하여 조달하

든 경제의 실질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새고전학파(배로: R.Barro)의 견해로 국공채는 정부의 부채이므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이를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국공채는 단지 조세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미래의 조세를 위하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면 국공채발행도 조세와 마찬가지로 소비감소 효과를 유발시킨다.

## 2.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 ① 경제활동인구(조세부담을 지는 경제주체)의 증가율이 0%이어야 한다.
- ②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이어야 한다.
- ③ 정부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고 항상 균형재정을 준수한다.
- ④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완전자본시장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 유동성제약(차입제약)이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 206.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무사 2011]

- ①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영(0)이다.
- ② 유동성 함정구간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하락시킨다.
- ③ 유동성 함정은 고전학파가 제시한 개념이다.
- ④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 ⑤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정답) ④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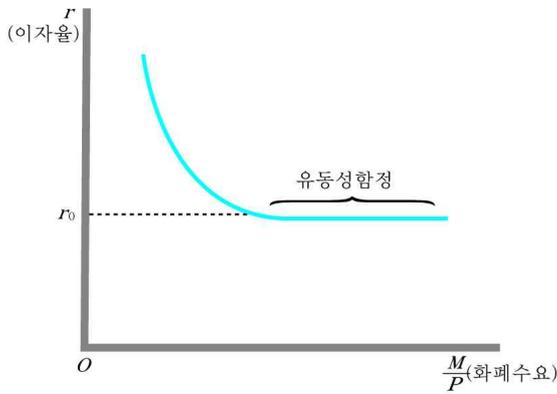
- ① (X)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다.
- ② (X) 유동성 함정구간에서 LM곡선이 수평선이므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 ③ (X) 유동성 함정은 케인즈가 제시한 개념이다.
- ④ (O)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
- ⑤ (X) 유동성 함정구간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이다.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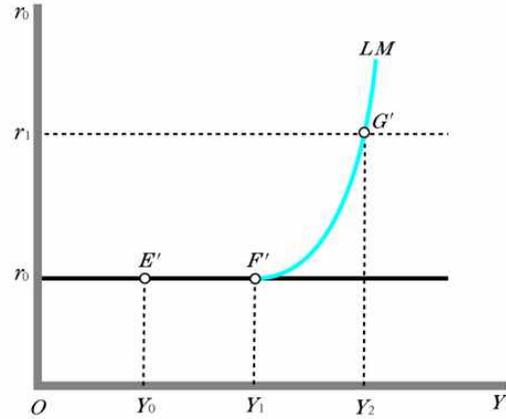
### ■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 ①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채권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이면 모든 사람들은 이자율이 상승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화폐수요(현금)를 무한히 증가하여 화폐수요곡선이 수평이 되는 구간을 유동성함정이라 한다.
- ② 이러한 유동성 함정구간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발생한다.
- ③ 이 구간에서는 이자율의 미세한 변화에 대하여 사람들의 화폐수요가 매우 민감한 반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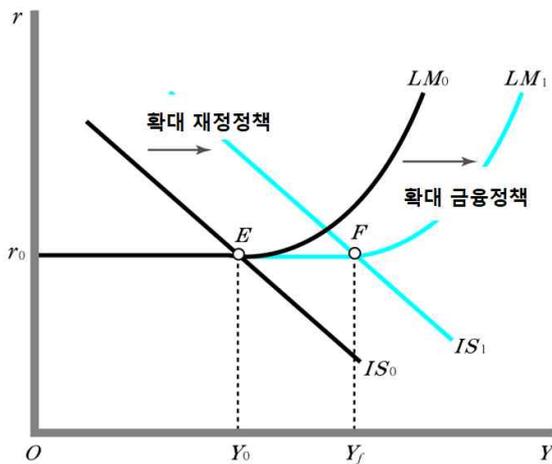
한다.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화폐수요함수



LM곡선



☞ 유동성 함정과 정책효과

❶ 확대재정정책

→ IS곡선 우측이동( $IS_0 \rightarrow IS_1$ )

→ F점 : 효과적

❷ 확대금융정책

→ LM곡선 우측이동( $LM_0 \rightarrow LM_1$ )

→ E점 : 효과가 없다.

211. 다음 중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무사 2017]

- 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
- ㄴ. 종합소득세율 인상
- ㄷ.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ㄹ. 물가수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증대
- ㅁ. 해외경기 호조로 순수출 증대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ㄷ, ㅁ

(정답) ②

(풀이)

- ㄱ. (O)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인하  $\Rightarrow$  주택수요증가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 ㄴ. (X) 종합소득세율 인상  $\Rightarrow$  조세증가  $\Rightarrow$  AD곡선 좌측이동
- ㄷ. (O)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Rightarrow$  투자요증가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 ㄹ. (X) 물가수준 하락으로 가계의 실질자산가치 증대  $\Rightarrow$  소비증가  $\Rightarrow$  AD곡선 상의이동
- ㅁ. (O) 해외경기 호조로 순수출 증대  $\Rightarrow$  IS곡선 우측이동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참고)**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

요인	변수	IS곡선 LM곡선이동	AD곡선 이동
IS곡선의 이동요인	소비( $C_0$ ), 투자( $I_0$ ), 정부지출( $G_0$ ), 수출( $X_0$ ) 등이 증가		우측이동
	조세( $T_0$ ), 수입( $M_0$ ), 저축( $S$ )이 증가		좌측이동
LM곡선의 이동요인	통화량( $M_0$ )증가		우측이동
	화폐수요 증가(소득 불변)		좌측이동
	물가상승	<b>좌측이동</b>	<b>AD곡선상의 이동</b>

◆ IS곡선과 LM곡선의 이동과 AD 곡선의 이동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물가상승은 LM곡선을 좌측이동시키나 AD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 AD곡선상의 좌상방으로 이동된다.

214.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AS)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노무사 2013]

- ① 임금 상승                      ② 통화량 증가                      ③ 독립투자 증가
- ④ 정부지출 증가                  ⑤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정답) ①

(풀이)

- ① (O) 임금 상승  $\rightarrow$  노동수요감소  $\rightarrow$  총공급곡선(AS)을 왼쪽으로 이동
- ② (X) 통화량 증가  $\rightarrow$  LM곡선 우측이동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 ③ (X) 독립투자 증가  $\rightarrow$  LM곡선 우측이동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 ④ (X) 정부지출 증가  $\rightarrow$  LM곡선 우측이동  $\rightarrow$  AD곡선 우측이동
- ⑤ (X)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rightarrow$  생산비용하락  $\rightarrow$  총공급곡선(AS)을 오른쪽으로 이동

**(참고)**

■ 총공급곡선의 이동

(1) 노동공급증가의 영향

인구증가, 노동의욕 상승, 근로소득세가 인하  $\rightarrow$  노동공급이 증가  $\rightarrow$  노동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rightarrow$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rightarrow$  AS곡선이 우측 이동

(2) 노동수요증가의 영향

생산성 향상, 원자재 가격이 하락, 법인세 인하 등 → 노동수요 증가 → 노동수요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3) 생산함수의 이동영향

기술진보나 자본이 증가 → 생산함수가 상방으로 이동 → 노동수요 곡선 우측으로 이동 → 동일 물가수준에서 생산증가 → AS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4) 예상물가의 영향

예상물가수준이 상승하면 → AS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220.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폐쇄경제를 가정한다.) ( 2020 노무사 )

- ① 통화정책은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 ③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려도 명목임금은 변하지 않는다.
- ④ 구축효과란 정부지출 증가가 소비지출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모두 경기 팽창효과가 있으며, 국민소득의 각 구성요소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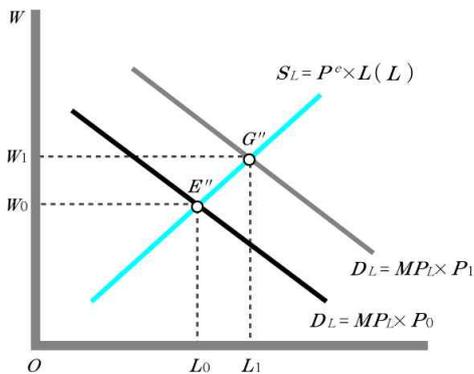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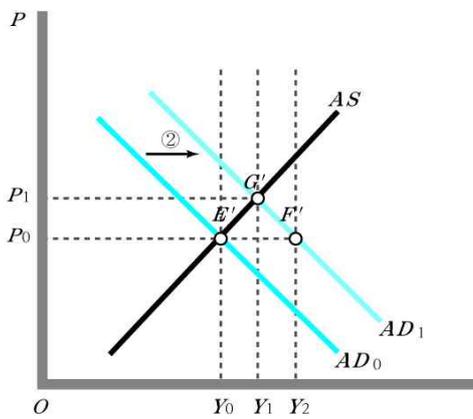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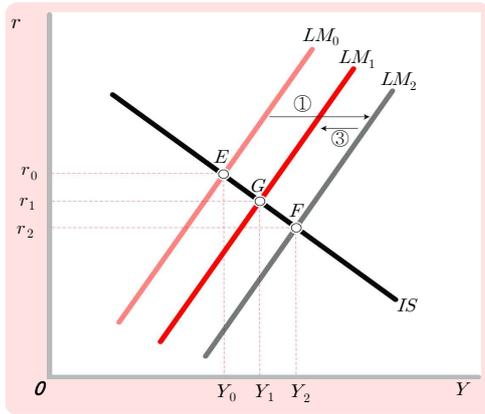
(정답) ①

(풀이)

- ① (O)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하므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 ② (X)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총수요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 ③ (X) 화폐의 중립성에 따르면, 통화량을 늘리면 실질임금은 변하지 않지만 명목임금은 증가한다.
- ④ (X) 구축효과란 정부지출 증가가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⑤ (X) 확장적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은 모두 경기 팽창효과가 있으며, 국민소득의 각 구성요소 중 투자에 대하여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참고)

- 금융정책의 AD-AS분석



### ❶ 확대금융정책의 파급경로

- ㉠ 화폐공급(M)을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 총수요증가 → 총수요곡선(AD)우측이동  
→ 물가(P)상승 → 실질화폐공급( $\frac{M}{P}$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 → 균형국민소득( $Y_1$ )
- ㉡ 노동시장 : 물가상승 → 노동수요증가  
→ 균형고용량 증가 ( $L_1$ )

### ❷ 확대금융정책의 효과

- ㉠ 균형국민소득 증가 ( $Y_0 \rightarrow Y_1$ ),
- ㉡ 물가 상승 ( $P_0 \rightarrow P_1$ )
- ㉢ 이자율 하락 ( $r_0 \rightarrow r_1$ )
- ㉣ 명목임금 상승 ( $W_0 \rightarrow W_1$ )
- ㉤ 균형고용량 증가 ( $L_0 \rightarrow L_1$ )
- ㉥ 실질임금 하락( $\frac{W_0}{P_0} \rightarrow \frac{W_1}{P_1}$ )

### ❸ 한편 동일한 규모의 통화공급의 증가는 IS-LM 모형하의 국민소득증가 ( $Y_2$ )가 AD-AS모형에서의 국민소득증가( $Y_1$ )보다 크거나 같다.

- ㉠ IS-LM 모형:  $Y_2 - Y_0$
- ㉡ AD-AS모형:  $Y_1 - Y_0 =$  ㉢-물가상승효과

### ◆ 재정정책과 차이는 IS-LM 모형에서만 차이가 발생하고 AD-AS모형과 노동시장은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한편,

- ㉠ 재정정책에서는 이자율이 상승 ( $r_0 \rightarrow r_1$ ) 하여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
- ㉡ 금융정책에서는 이자율이 하락 ( $r_0 \rightarrow r_1$ ) 하여 투자가 증가하므로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서는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② 결국 효율성임금은 균형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으로** 유지된다.

233.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2020 노무사 )

-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②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GDP를 명목GDP로 나눈 수치이다.
- ③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생계비의 변화를 과대평가한다.
- ④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 선택의 폭이 증가함에 따른 화폐가치의 상승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 ⑤ 소비자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가격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정답) ②

(풀이)

- ① (O) 소비자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므로 재화의 품질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② (X)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수치**이다.
- ③ (O) 소비자물가지수는 **라스파이레스 방식**이므로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생계비의 변화를 **과대평가**한다.
- ④ (O)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 선택의 폭이 증가함에 따른 화폐가치의 상승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
- ⑤ (O) 소비자물가지수는 **(참고)에서** GDP 디플레이터와 달리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의 가격 변화도 반영할 수 있다.

(참고)

	라스파이레스 방식 (Laspeyres price index: LPI)	파셰 방식 (Paasch price index: PPI)
가중치	· 기준년도의 거래량( $Q_0$ )을 가중치	· 비교년도의 거래량( $Q_t$ )을 가중치
정의	$LPI = \frac{\sum P_t \cdot Q_0}{\sum P_0 \cdot Q_0} \times 100$ ( $P_t$ : 비교년도 물가, $Q_0$ : 기준년도 거래량)	$PPI = \frac{\sum P_t \cdot Q_t}{\sum P_0 \cdot Q_t} \times 100$ ( $P_0$ : 기준년도 물가, $Q_t$ : 비교년도 거래량)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성이 비교적 간편하다.</li> <li>· <b>일반적(물가상승 때)으로 과대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b></li> <li>· 신상품을 물가에 반영하지 못한다.</li> <li>· 상대적으로 하락한 재화로 대체소비 를 반영하지 못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교년도의 가중치와 대상품목을 매년 조사하여야 하므로 번거로움이 있다.</li> <li>· 비교적 정확한 물가지수를 나타낸다.</li> </ul>
사용지수	·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 GDP디플레이터 = $\frac{\text{명목 GDP}}{\text{실질 GDP}} \times 100$

■ 물가지수 추계범위

	수입품 가격	주택임대료	신규주택가격	기존주택가격
생산자물가지수(PPI)	×	×	×	×
소비자물가지수(CPI)	○	○	×	×
GDP 디플레이터	×	○	○	×

235. 우유와 빵만을 생산하는 경제에서 두 재화의 생산량과 가격이 다음 표와 같다. 2010년 이 기준년도일 때 2011년의 실질 GDP와 물가상승률은? (단, 물가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구함) [노무사 2011]

년도	우유 가격(원)	우유 생산량	빵 가격(원)	빵 생산량
2010	1	100	2	50
2011	2	200	2	100

- ① 300원, 100%      ② 300원, 30%      ③ 400원, 50%  
 ④ 300원, 50%      ⑤ 400원, 20%

(정답) ③

(풀이)

$$2011\text{년의 실질 GDP} = \sum P_0 Q_t = 1 \times 200 + 2 \times 100 = 400$$

$$\text{파세 방식(GDP디플레이터)} \frac{\sum P_t \cdot Q_t}{\sum P_0 \cdot Q_t} \times 100 = \frac{2 \times 200 + 2 \times 100}{400} \times 100 = 150$$

기준년도 GDP디플레이터는 100이므로 물가상승률은 50%이다.

242.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20 노무사 )

-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이득을 보고 채무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② 피셔(I. Fisher) 가설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금전거래에서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을 더 회피하도록 만든다.  
 ④ 경기 호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⑤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줄여 재정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풀이)

- ① (X)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이득을 보고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 ② (O) 피셔(I. Fisher) 가설에 따르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미미하다.
- ③ (X)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금전거래에서 장기계약을 더 회피하도록 만든다.
- ④ (X) 경기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 ⑤ (X) 인플레이션 조세는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실질적인 재정 수입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 **인플레이션의 영향**

(1)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경우 ( $\pi_t > \pi_t^e$ )**

1) **부와 소득의 재분배**

실제실질이자율이 감소하므로 채권자는 불리하고 채무자는 유리하다.

2) **조세부담증가 : 각종제도(조세)가 변하지 않는 경우**

- ① 누진세가 적용되는 소득세의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봉급생활자는 불리하다.
- ② 이자 소득세는 비례세일지라도 예금자(채권자)가 불리하다.

3)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2)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 $\pi_t = \pi_t^e$ )**

1) **효율성 저하**

- ① 실물자산의 선호로 화폐경제의 효율성을 저하한다.
- ② 물가변화에 따른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 ③ 현금거래 회수의 증가로 거래비용(shoe-leather cost:구두창비용)이 증가한다.

2) **경제성장이 저하**

3) **국제수지악화**

■ **인플레이션조세**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는 그 현금통화를 발행한 정부의 중앙은행이 값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매력의 하락은 민간이 지불하여야하는 실질비용과 같게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화폐에 부과하는 조세와 같은 작용을 하므로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 한다.

246.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무사 2010]

- ① 인플레이션은 실질조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을 낮춘다.
- ③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불변일 때 실질소득은 증가한다.
- ④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 명목임금은 감소한다.
- ⑤ 인플레이션은 잦은 가격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을 초래한다.

(정답) ⑤

(풀이)

- ① (X) 인플레이션은 누진세인 경우 조세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실질조세에 영향을 미친다.
- ② (X) 인플레이션은 피셔의 가설에 의해 명목이자율을 높인다.
- ③ (X)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소득이 불변일 때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 ④ (X)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불변일 때 명목임금은 인플레이션 증가율만큼 증가한다.
- ⑤ (O) 인플레이션은 낮은 가격 조정에 수반되는 비용인 메뉴비용을 초래한다.

249.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용통계 작성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 2021 노무사 )

- ①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②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 ③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 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정답) ①

(풀이)

- ① (X) 아버지가 수입을 위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조사대상주간에 무상으로 주당 20시간 근로한 자녀는 취업자이므로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②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한다.
- ③ (O) 질병으로 입원하여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O) 대학생이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에 주당 1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취업자로 분류된다.
- ⑤ (O)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수의 비율이다.

(참고)

■ 실업자(unemployed person , 失業者)의 개념

- 1.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았으며, 일이 주어졌을 경우 즉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구비된 사람을 의미한다.
- 2. 조사기간 중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한다.
- 3. 일기불순, 일시적인 병, 자영업 준비, 직장대기, 구직결과 대기 등으로 구직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한

자

■ 취업자개념 (실업자가 아닌 경제활동 참가자)

1. 가족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무급종사자
2. 사업장 종사자로 질병, 휴가, 일기불순, 노사분규등의 사유로 일을 못한사람

251. 실업에 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 2015 노무사 )

- ①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억제시켜야 한다.
- ②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 ③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모두 낮아진다.
- ④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감소시킨다.
- ⑤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제공을 축소해야 한다.

(정답) ②

(풀이)

- ① (X)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가시켜야 한다.
- ② (O)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포기자의 증가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므로 실업률을 감소시킨다.
- ③ (X) 전업주부가 직장을 가지면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 ④ (X) 실업급여의 확대는 탐색적 실업을 증가시킨다.
- ⑤ (X) 정부는 탐색적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취업정보의 제공을 증가해야 한다.

257.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 명인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하자. 이 가운데 취업자가 570만 명 이고 실업자가 30만 명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무사 2017]

- ① 실업률은 5%이다.
- ② 비경제활동률은 40%이다.
- ③ 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 ④ 고용률은 60%이다.
- ⑤ 이 나라의 전체 인구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풀이)

15세 이상의 인구=생산가능인구(1,000만)		
비경제활동인구(400만)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600만명)	
	취업자(570만)	실업자(30만)

주어진 조건을 적용하면 경제활동인구(600만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명이다.

- ① (O)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30}{600} \times 100 = 5(\%)$
- ② (O) 비경제활동인구는 400만명이므로 비경제활동률은 40%이다.
- ③ (O) 경제활동인구는 600만 명이다.
- ④ (X) 고용률은  $\frac{\text{취업자수}}{\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 \frac{570}{1,000} \times 100 = 57(\%)$ 이다.
- ⑤ (O) 15세 이하 인구를 알 수 없으므로 이 나라의 전체 인구는 알 수 없다.

**(참고)**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세 이상의 인구(A)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D)	실업자(E)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B+C} \times 100(\%)$$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259. A국에서 실업률이 6%일 때 실업자가 60만 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얼마인가?

[노무사 2019]

- ① 60만 명      ② 940만 명      ③ 1,000만 명      ④ 1,060만 명      ⑤ 1,100만

(정답) ②

(풀이)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 \frac{60}{D+60} \times 100 = 6$$

양변을 6으로 나눈 후 정리하면

$$1,000 = D+60 \Rightarrow \therefore D = 940(\text{만 명})$$

261. 경제활동참가율이 60%이고 실업률이 10%일 때, 고용률은? ( 2016 노무사 )

- ① 45%              ② 54%              ③ 66%              ④ 75%              ⑤ 83%

(정답) ②

(풀이)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6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10(\%)$$

비율자료이므로 15세 이상인구를 100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5세 이상의 인구(100)		
비경제활동인구(40)	경제활동인구(60)	
	취업자(54)	실업자(6)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수}}{\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54}{100} \times 100(\%) = 54(\%)$$

262. A국가는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이고, 매 기간 동안 실직률(취업자 중 실직하는 사람의 비율)과 구직률(실직자 중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은 각각 2%와 18%이다. 균제상태(steady state)의 실업자 수는? ( 2021 노무사 )

- ① 25만 명      ② 40만 명      ③ 50만 명      ④ 75만 명      ⑤ 100만 명

(정답) ⑤

❖ (풀이)

$$\text{자연실업률} = \frac{s}{s+f} = \frac{\text{실직률}}{\text{실질률} + \text{구직률}} = \frac{2\%}{2\% + 18\%} \times 100(\%) = 10(\%)$$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1,000} \times 100(\%) = 10(\%)$$

그러므로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참고)

■ 자연(균제상태)실업률

경제활동인구가 고정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취업자(E)중 실직률(job separation rate)을  $s$ 라 하고 실업자(U) 중에서 구직률(job finding rate)을  $f$ 라 한다.

$$\text{자연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text{취업자수} + \text{실업자수}} = \frac{U}{U+E} = \frac{U}{U+\frac{f}{s}U} = \frac{s}{s+f} = \frac{\text{실직률}}{\text{실질률} + \text{구직률}}$$

269. 적응적 기대가설 하에서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노무사 2011]

- ㄱ.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ㄴ.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우하향한다.
- ㄷ.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ㄹ.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클 경우 물가가 상승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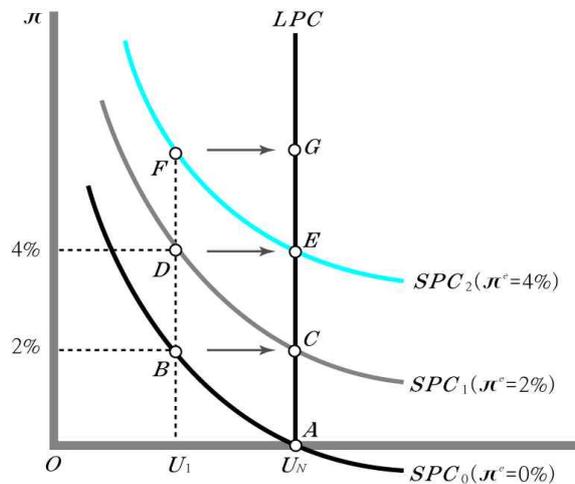
(정답) ③

(풀이)

- ㄱ. (O)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 ㄴ. (X) 밀턴 프리드만(M. Friedman)에 의하면 필립스곡선은 장기에 수직하다.
- ㄷ. (O)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 단기 필립스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 ㄹ. (X) 필립스곡선은 단기에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클 경우 물가가 하락한다.

(참고)

■ 기대부과 필립스곡선과 장기의 필립스곡선(LPC)



- ① 처음 A점에서는 ( $\pi^e=0$ )이면 필립스곡선은 우하향의  $SPC_0$ 이 된다.  
 $U_N=4\%$ 이고  $\alpha=1$ 이라 하면  $\pi = \pi^e - \alpha(U - U_N) = 4 - U$        $\rightarrow \pi = 4 - U$   
 이 때 실업을 줄이기 위하여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면 그림에 의해 단기적으로 B점 즉, 물가가 2%로 상승하고 실업률이  $U_1$ 으로 하락한다.       $\rightarrow U_1 = 2\%$   
 ◆ AD-AS분석에서 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 ②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물가상승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pi^e=2\%$ 가 되면 기대부가 필립스곡선에 의해 필립스곡선은  $SPC_1$ 이 되어 상방으로 이동하여 C점에 도달한다.       $\rightarrow \pi = 6 - U$
- ③ 또 다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C점→D점→E점→F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므로 장기필립스곡선(LPC)은 자연실업률( $U_N$ )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로 도출된다.  
 $\rightarrow U_N = 4\%$

273. D국 경제의 총생산함수  $Y = AK^{\frac{1}{3}}L^{\frac{2}{3}}$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을 나타낸다.) [노무사 2019]

- ① 총생산량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frac{2}{3}$ 이다.
- ② 기술이 진보하면 총요소생산성(A)이 증가한다.
- ③ 총생산함수는 규모에 따른 수확체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경제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A)의 증가율과 투입물(L, K)의 증가율로 결정된다.
- ⑤ 노동소득분배율은  $\frac{2}{3}$ 이다.

(정답) ③

(풀이)

- ① (O) 총생산량에 대한 노동탄력성은 (참고) (2)에 의해  $\alpha = \frac{2}{3}$ 이다.
- ② (O) 기술이 진보하면 총요소생산성(A)이 증가한다.
- ③ (X) 총생산함수는  $\alpha + \beta = 1$ (1차 동차)이므로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을 나타내고 있다.
- ④ (O) 경제성장률은 (참고) (4)에서 총요소생산성(A)의 증가율과 투입물(L, K)의 증가율로 결정된다.
- ⑤ (O) 노동소득분배율은 (참고) (3)에서  $\alpha = \frac{2}{3}$ 이다.

**(참고)**

■ Cobb-Douglas생산함수

$$Y = AL^\alpha K^\beta \quad (A > 0)$$

(1) Cobb-Douglas생산함수와 규모에 대한 수익

생산함수  $Q = F(L, K) = AL^\alpha K^\beta$  라 하면 동차생산함수의 정의에 의해 항상  $\alpha + \beta$  차 동차생산함수가 되므로

- ①  $\alpha + \beta = 1$ (1차 동차)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CRS)
- ②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IRS)
- ③  $\alpha + \beta < 1$  이면 :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DRS)

(2) 생산의 요소탄력성

- ① 생산의 노동 탄력성  $= \frac{dQ/Q}{dL/L} = \frac{MP_L}{AP_L} = \alpha$
- ② 생산의 자본 탄력성  $= \frac{dQ/Q}{dK/K} = \frac{MP_K}{AP_K} = \beta$

(3) 소득분배율

1) 노동의 소득분배율:  $\frac{w \cdot L}{Q} = \frac{MP_L \cdot L}{Q} = \frac{\alpha AL^{\alpha-1} K^\beta \cdot L}{Q} = \frac{\alpha AL^\alpha K^\beta}{Q} = \alpha$

2) 자본의 소득분배율:  $\frac{r \cdot K}{Q} = \frac{MP_K \cdot K}{Q} = \frac{\beta AL^\alpha K^{\beta-1} \cdot K}{Q} = \frac{\beta AL^\alpha K^\beta}{Q} = \beta$

277. 솔로우(R. Solow)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f(k)=4k^{0.5}$  이고, 저축률은 5%, 감가상각률은 2%, 그리고 인구증가율은 2%이다. 균형상태(steadystate)에서 1인당 자본량은? (단, y는 1인당 산출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 2021 노무사 )

- ① 21                      ② 22                      ③ 23                      ④ 24                      ⑤ 25

(정답) ⑤

(풀이)

(참고) 균형조건  $sf(k) = (n + \delta)k$ 에 대입하면

$$0.05 \times 4k^{0.5} = (0.02 + 0.02)k \Rightarrow 5k^{0.5} = k$$

$$\text{양변을 제곱하면 } 25k = k^2 \therefore k = 25$$

(참고)

- 솔로우모형의 균형상태(steady state) [감가상각율  $\delta$ 이 존재하는 경우]

$$sf(k) = (n + \delta)k$$

$$1\text{인당 실제투자액(저축액)} = 1\text{인당 필요투자액}$$

281. 甲국과 乙국 두 나라만 존재하며 재화는 TV와 쇠고기, 생산요소는 노동뿐이며, 두 나라에서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다음과 같다. 이때 리카도(D.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무사 2013]

구분	甲국	乙국
TV	3	2
쇠고기	10	4

- ① 乙국이 두 재화 모두 甲국에 수출한다.
- ② 甲국은 쇠고기를 乙국은 TV를 상대국에 수출한다.
- ③ 국제거래가격이 TV 1단위당 쇠고기 0.2단위면, 甲국은 TV를 수출한다.
- ④ 국제거래가격은 쇠고기 1단위당 TV 0.3단위와 0.5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 ⑤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甲국은 TV만 생산할 때 이익이 가장 크다.

(정답) ⑤

(풀이)

甲국의 TV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쇠고기 단위수로 나타내면  $\frac{P_{TV}}{P_{쇠}} = \frac{3}{10} = 0.3$ 단위

乙국의 TV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은 쇠고기 단위수로 나타내면  $\frac{P_{TV}}{P_{쇠}} = \frac{2}{4} = 0.5$ 단위

甲국의 TV 1대 생산의 기회비용이 작으므로 甲국은 TV, 乙국은 쇠고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국제거래가격은 두 국가사이의 기회비용에서 결정되므로 TV 1대와 거래되는 쇠고기는 0.3단위와 0.5단위 사이이다.

① (X) 乙국이 쇠고기를 甲국에 수출한다.

② (X) 甲국은 TV를 乙국은 쇠고기를 상대국에 수출한다.

③ (X) 국제거래가격이 TV 1단위당 쇠고기 0.2단위면, 국제거래가격 범위에 벗어나므로 무역은 이뤄지지 않는다.

④ (X) 국제거래가격은 TV 1단위당 쇠고기 0.3단위와 0.5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⑤ (O)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甲국은 TV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TV만 생산할 때 이익이 가장 크다.

290. 국제수지표 상 경상계정 (current accounts)에 속하지 않은 항목은? ( 2016 노무사 )

- ① 정부 사이의 무상원조
- ② 해외교포로부터의 증여성 송금
- ③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투자 소득
- ④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 ⑤ 내국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정답) ⑤

(풀이) [ 289 문제] (참고)

- ① 정부 사이의 무상원조 ⇒ 경상계정 (이전소득수지)
- ② 해외교포로부터의 증여성 송금 ⇒ 경상계정 (이전소득수지)
- ③ 해외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등의 투자 소득 ⇒ 경상계정 (본원소득수지)
- ④ 내국인의 해외여행 경비 ⇒ 경상계정 (본원소득수지)
- ⑤ (X) 내국인의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 ⇒ 금융계정 (증권투자)

(참고)

■ 국제수지(종합수지)의 내용

대분류	소분류	내 용
경상수지	상품수지	· 재화수출액과 재화수입액의 차이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서비스수지	· 가공서비스, 운수, 여행, 통신서비스, 지적재산권 사용료,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본원소득수지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거나 투자해서 얻은 소득과의 차이로 급료, 직접투자, 증권투자 등에 따른 투자소득(이자+배당) 등
	이전소득수지	· 국가 간 무상원조, 국제기구 출연금, 해외교포의 국내송금 등
자본수지	자본이전 및 비생산·비금융자산	· 자산소유권의 무상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변제, 상표 등 마케팅 자산과 기타 양도 가능한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차이
금융계정	직접투자	· 해외기업에 투자
	증권투자	· 주식, 채권에 투자
	파생금융상품	· 파생금융상품(옵션과 프리미엄의 거래)
	기타투자	· 대출, 차입, 수출입에 따른 무역신용, 현금 및 예금 등
	준비자산	· 중앙은행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자산의 증감을 계상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 IMF 리저브포지션, 외환자산 등)
오차 및 누락		

293.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노무사 2013]

- ①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
- ②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증가
- ③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
- ④ 국내산 제품의 수출 증가
- ⑤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주식 매입

(정답) ②

(풀이)

- ①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 → 외환의 공급증가 → 외환공급곡선 우측이동 → 환율하락
- ②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증가 → 외환의 수요증가 → 외환수요곡선 우측이동 → 환율상승
- ③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 → 외환의 공급증가 → 외환공급곡선 우측이동 → 환율하락
- ④ 국내산 제품의 수출 증가 → 외환의 공급증가 → 외환공급곡선 우측이동 → 환율하락
- ⑤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주식 매입 → 외환의 공급증가 → 외환공급곡선 우측이동 → 환율하락

296. 금년도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4%,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2%, 그리고 원/달러 명목환율 (₩/\$)의 하락률이 5%일 때 실질환율의 변화는? [노무사 2011]

- ① 2% 상승    ② 3% 상승    ③ 2% 하락  
 ④ 3% 하락    ⑤ 7% 하락

(정답) ⑤

(풀이)

$$\frac{\Delta \epsilon}{\epsilon} = \frac{\Delta e}{e} + \frac{\Delta P_f}{P_f} - \frac{\Delta P}{P} = -5\% + 2\% - 4\% = -7\%$$

(참고)

■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변화율과 구매력평가설

(1)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

실질환율이란 한 나라의 상품이 다른 나라의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text{실질 환율}(\epsilon) = \frac{\text{명목 환율}(e) \times \text{해외물가}(P_f)}{\text{국내물가}(P)}$$

(2) 실질환율 변화율

변화율에 관한 식으로 변화시키면 다음과 같다.(로그 미분식)

$$\frac{\Delta \epsilon}{\epsilon} = \frac{\Delta e}{e} + \frac{\Delta P_f}{P_f} - \frac{\Delta P}{P}$$

실질환율 변화율 = 명목환율 변화율 + 해외물가 상승률 - 국내물가 상승률

298. A국은 자본이동 및 무역거래가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A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른 최종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IS-LM-BP 모형에 의한다.) [노무사 2019]

- ①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다.
- ③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④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⑤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 모두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다.

(정답) ③

(풀이) [ 297 문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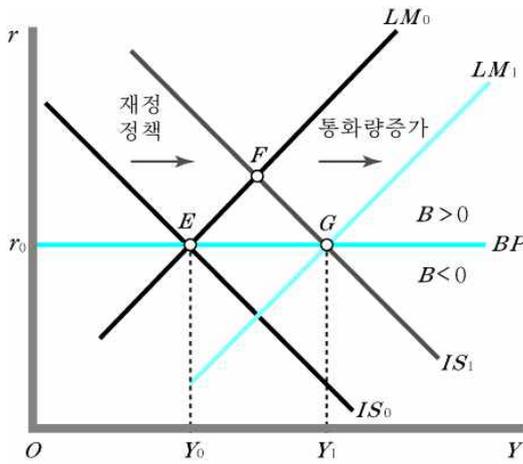
- ① (×)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만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 ② (×)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가 있다.
- ③ (○) 고정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 ④ (×)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없지만, 확장적 통화정책은 효과가 있다.
- ⑤ (×) 변동환율제에서 확장적 통화정책만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참고)

■ 자본이동이 완전한 경우: 개방소국(BP곡선이 수평선)의 정책효과

정책	환율제도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확대 재정정책		효과 강력(O)	효과 무력
확대 금융정책		효과 무력	효과 강력(O)

■ 고정환율제도에서의 재정·금융정책(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 개방소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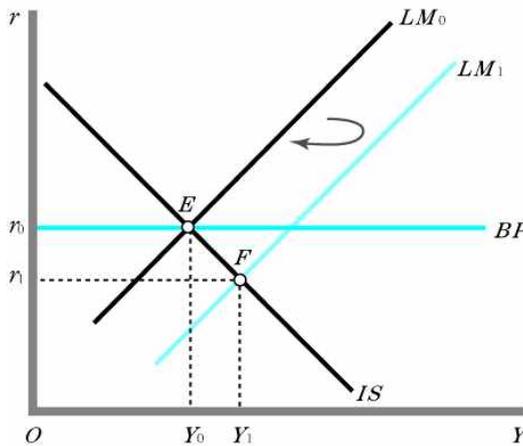


☞ 확대 재정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정부지출 증가
- IS곡선 우측이동( $IS_0 \rightarrow IS_1$ )
- 국제수지 흑자 (BP곡선 상방) : F점 (즉, 이자율 상승 → 자본유입)
- 中央은행(달러매입)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LM_0 \rightarrow LM_1$ )
- 새로운 균형점 : G점( $Y_1, r_0$ )
- 효과적 (산출량 증가, 이자율 불변)

☞ 확대 화폐금융정책

- 최초의 균형점  $E(Y_0, r_0)$
-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우측이동( $LM_0 \rightarrow LM_1$ )
- 국제수지 적자 (BP곡선 하방) : F점 (즉, 이자율 하락 → 자본유출)
- 中央은행(달러매각) → 통화량 감소
- LM곡선 좌측이동( $LM_1 \rightarrow LM_0$ )
- 새로운 균형점 : E점( $Y_0, r_0$ )
- 효과무력 (산출량 불변, 이자율 불변)



----- 이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